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을 당신이 하라.

Let people do what they need to do to make them happy, mind your business, and do what you need to do to make you happy. (Ritu Ghatourey)

사람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하게 두고, 당신의 일을 하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게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라. (리투 가토우리)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열린 창문으로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차창 밖으로 가을의 맑은 하늘과 들판에 노랗게 물들어 있는 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폰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는 아침에 우박이 내렸다는 소식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자신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한 후배의 자기 성찰의 글을 접하였습니다.

“---내면보다는 외형에 치우친 삶을 반성해 봅니다.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이름만 올려놓은 단체도 탈퇴하고 나 자신을 돌아

다봅니다. ---외형보다는 내면에 충실할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남의 눈에 비추는 삶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열적으로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후배가 마련하여 준 것 같았습니다. 나의 몸에는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내면에 충실!!! 공감!>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배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조금은 알기에 마음속으로 “야 멋지다, 그 깨달음이 자네의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응원하면서... 그리고 보니 후배를 향한 나의 마음속 메시지는 또한 저를 향한 채찍질이며,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네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을 당신이 하라.